

특별기획

김제 교월동장협, 새만금 현장 견학

김제시 교월동 주민센터(동장 이춘구)는 통장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 내부개발 현장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였다.

이날 통장 회의를 마치고 진행된 이번 견학은 미래 김제발전의 동력이 될 새만금 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와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의 시민주요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원들은 진봉면 심포 내부개발 현장에서 새만금 신항만 동서2축 간선도로, 농업용지 5공구 및 심포 마리아나 등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지난해 10월 김제시민의 힘으로 확보한 2호 방조제 구간을 포함한 새만금 방조제 33km 전 구간을 지나며 새만금 사업의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견학을 함께한 박상문 교월동장은 "새만금 사업은 김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이 될 중요한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새만금 사업 등 우리시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담당자수지 수해대처훈련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정동환)는 최근 담당자수지에서 정읍소방서 등 긴급복구 동원업체, 지역주민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풍수해 대비 수리시설에 대한 비상대처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날 훈련은 여름철 태풍 복상에 따른 집중호우로 담당자수지에 유입된 홍수량을 방류하던 중 너울로 인한 정전이 발생하여 여수로 수문 작동이 불가능한 긴급상황에 대처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들의 위기대응 능력향상과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시되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우려되는 저수지 붕괴와 같은 수리시설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담당자수지 제방에서 실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훈련은 전라북도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현장에 참석해 훈련상황을 지원·점검하였으며, 저수지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 종로단계 등 단계별로 실시하여 신속한 대피, 응급복구 및 긴급동원업체 투입 등 긴급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재난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농기센터 '씨 없는'

수박' 품질 향상에 총력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씨 없는 컬러수박(이하 컬러수박)의 품질 향상에 총력을 쏟고 있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1억1천600만 원을 들여 10ha의 컬러수박단지(6농가)를 조성, 5월부터 본격 생산될 예정이다.

이번에 생산되는 컬러수박은 겉이 까만 수박과 겉이 노란 수박 2가지 품종으로, SWT(Seedless Watermelon Technology) 꽃가루로 수정된다.

씨 없는 노란 수박은 정읍에서만 생산되는 유일한 컬러 수박이고, 특히 5월에 생산되는 씨 없는 흑피 수박 일부는 일본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소비 변화 추세에 맞춰 다양한 컬러수박을 생산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월요일 농업인과 함께 수박하우스를 찾아가 생육상황과 병해충 발생상황을 확인하고 재배기술 등을 토론하는 등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다

이에 앞서 기술센터는 SWT 꽃가루를 이용한 수박 수정 방법과 생육 시기별 온도관리 등을 교육했고, 참석 농업인들은 서로 간 재배기술법을 서로 공유하는 등 정읍 수박 산업 발전을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한편 기술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SWT 꽃가루를 이용한 씨 없는 수박생산기술을 농업인들에게 보급해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점검 현장에서는 200여대를 대상으로 정읍지회 소속 자동차 정비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이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주행장치, 엔진, 배터리 등을 점검했다.

정읍시민 자동차 무상점검 호응

전북신자동차전문정비조합, 200여 대 정비서비스... 교통사고 예방

(사)전북신자동차전문정비조합 정읍지회(이하 정읍지회)는 정읍시 후원으로 지난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읍시청 앞 광장에서 비사업용(자가용) 자동차(승용승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무상점검을 진행했다.

올해로 12회 차(2005년부터 매년 1회)인 이번 점검은 봄 행락철을 맞아 차량 상태를 미리 파악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자동차 정비·점검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200여대를 대상으로 정읍지회 소속 자동차 정비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이 세심하게 점검했

다. 특히 점검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갖추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주행장치, 엔진, 배터리 등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무상점검표를 작성·교부하는 한편 자동차 상태를 소유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 호응을 얻었다.

또한 엔진오일과 브레이크 오일, 냉각수, 워셔액을 무상으로 보충하고 타이어 마모상태 및 공기압을 측정함은 물론 각종 전구 등 소모품도 현장에서 무상으로 교환해 줬다.

이와 함께 장거리 여행을 위한 차량관리와 안전운전 요령 및 차량 운행 시 안전운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부차물도 제거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김생기 시장은 "나들이하기 좋은 봄철을 맞아 장거리 여행에 나서는 분들이 많다"며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집을 나서기 전에 반드시 자동차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이번 무상점검이 자동차 점검 소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행사를 주관한 전라북도신자동차전문정비조합 정읍지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림은 물론 앞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시민교통 편의증대 및 안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만경읍·청하면 일원 약30ha

김제시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견지인 만경읍·청하면 일원 약30ha에 농업용 무인헬기 3대를 활용하여 약제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제시 특성상 평야가 많고 소나무 임지가 작아 농업용 무인항공헬기를 활용하기로 했으며 사용약제는 저독성으로써 양봉, 누에 등의 생육환경

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전문기의 추진약제를 사용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만경읍에 재선충 감염목이 발견되어 발생지 주변 30ha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였고, 방제효율을 높이기 위해 광역살포기를 활용하여 50ha에 약제를 살포하고, 접근성이 열악한 곳에는 자체 방제차량을 이용한

방제에 나서고 있다.

김제시는 지난 15일 만경을 이장단 회의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과 앞으로 방제계획을 설명하고, 무인항공방제에 따른 당부사항에 대해 마을방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호응을 얻었다.

김제시 관계자는 "앞으로 예방나무주사 및 지상약제방제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예방을 통해 재선충병을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마실축제 음식점 청결 홍보

부안군은 제4회 마실 축제를 앞두고 음식점의 빈틈없는 손씻기 캠페인을 위하여 부안군 일원에서 부안군의식업지부,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과 함께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지난 22일 이들은 얼마 남지 않은 부안마실축제 준비 사항을 돌아보고 영업주의 친절 서비스 강화, 영업자 내·외 청결, 바가지 요금 근절 등 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여 빈틈없는 축제를 대비하고자, 부안군 관내 일원에서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개했다.

이들은 성공적인 마실 축제 성공을 음식점 영업주의 찾는 손님에 대하여

친절 업소 내외의 청결, 바가지 요금 근절에 좌우됨을 인식하고, 남은 기간 온 힘을 다하여 준비하고자 실시되었다.

관내 모 일반음식점 영업주는 "작년보다 기대 되는 축제라고 말하며, 축제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오는 손님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축제에 기여하고 싶다"며 성공적인 축제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부안군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음식점 영업주의 친절의지가 확고한 만큼 반드시 성공적인 축제를 기대하여도 되라며, "안심하고 부안마실축제가 놀러 오세요" 라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성덕면발전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1·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김제 '성덕면민의날' 한마음 축제

600여명 주민들 참석

제6회 성덕면민의날 한마음축제'가 지난 23일 성덕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천시 시장 김중회 국회의원 당선자, 강병진 도의원 등을 비롯한 600여명의 주민과 재경, 재진 출향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성덕면발전협의회(회장 오윤표)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1·2부로 나누어 기념식과 함께 줄다리기 등의 체육행사와 민속공연, 주민노래자랑 및 행운권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주민회합과 지역발전

회 회장(70·성덕면 후리마을)이 공로패를 받았고, 나시미를 김은숙씨가 효부상을 받았다. 주민노래자랑에서는 신등마을 허현숙씨가 1등을 체육행사 중 가장 큰 관심사였던 리대환 줄다리기는 성덕리가 우승을 해 단결된 주민의 힘을 선보였다.

신형순 성덕면장은 "성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본격적인 영농철 준비에 바쁜 시기에 모든 일손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고 전하며 5~6월에는 현장에 찾아가 밝혔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해경 야간응급환자 신속후송

부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가 야간응급환자 신속하게 후송 안전도 우리 역할을 특목하고 있다. 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4일 오후 7시 20분경 부안군 위도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긴급 후송했다.

부안 해경에 따르면 위도 주민 김모 씨(88세, 여)는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

져 경비정과 122구조대의 릴레이 후송으로 9시 30분경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 해경 관계자는 지난 21일 부안에 해양경비안전서 개서로 관내 도서 지역에 대한 응급환자 후송체계를 구축, 지역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featuring product images, a cartoon mascot, and promotional text in Korean.